

고준희양 사망 원인 '학대' 결론

경찰, 친부·내연녀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키로... 이씨 모친 김모씨 사체유기 혐의 적용

군산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당시 5세)양의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전주역전경찰서는 3일 준희양의 사망 원인을 학대로 보고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8)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한다.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

경찰은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 발견된 부러진 갈비뼈 3개가 사망 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평소 폭행을 했다는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말 준희양이 밤을 먹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씨가 준희양 발목 부분을 심하게 밟아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가 이날 이후 발목 복숭아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4월20일부터 몸에 수포가 생기고 걷기 힘들 정도로 기력을 잃었



강추위가 속 눈썰매 타는 아이들

강추위가 몰아친 3일 어느 눈썰매장을 찾은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면서 즐거워 하고 있다.

다"고 진술했다.

앞서 고씨는 경찰에서 "준희를 때린 적이 있다. 이씨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반면 이씨는 "고씨가 준희를 때린 해 전주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도 가입

그런데도 "준희 시신을 고씨와 어머니(김씨)가 유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체유기 가담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고씨와 이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준희양 시신) 부검을 마치고 전문가가 자문 구하는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씨와 이씨에 대해 4일 현장검증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전일여객, 시내버스 1일 2교대 선진지 견학

오는 2월부터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일여객 시내버스 노·사가 시범운영에 앞서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전주시는 3일 전일여객 회사관계자와 노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등 10여명과 함께 1일 2교대가 시행중인 청주시와 세종시에서 시범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청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청주시내버스의 전반적인 현황 및 1일 2교대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청주시내버스 회사인 우진교통과 청신운수를 잇달아 방문해 1일 2교대 근무방법 및 교대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일 2교대를 시행중인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들러 1일 2교대 추진 시 쟁점사항과 대책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와 전일여객 시내버스 노·사는 이번 선진지 견학에 이어 제반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1일 2교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

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고질적인 불친절 문제도 줄어들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내버스 노·사·정은 지난해 20일 운수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일여객부터 1일2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22일 열린 1일 2교대 TF팀 첫 회의에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청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우진교통, 청신운수,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사전협의를 마쳐 이번 견학을 진행하게 됐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1일 2교대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시 상황에 알맞은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1일 2교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 운수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버스타기 즐거움 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남전주성결교회 부설주차장 정음·고창 카풀주차장으로

전주시가 평일 활용도가 낮은 교회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을 위한 카풀주차장으로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남전주성결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일부터 교회 부설주차장 113면(장애인전용 4면, 여성우선주차 12면 포함)을 평일에 한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김제·정음·고창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립전주박물관 인근에 주차장 84면 규모의 카풀주차장을 운영해왔지만, 카풀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시는 남전주성결교회와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 향후 2년 동안 교회부설 주차장을 개방키로 뜻을 모았다.

시설공사 및 안내판 설치 작업을 거쳐 이달 8일부터 카풀주차장으로 제공키로 했다.

김창원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카풀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장을 내 것처럼 깨끗하게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를 자전거 타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시, 자전거 타기 좋은 기반시설 구축·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등 자전거 정책 추진

전주시가 올 한해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정비하고 도로 턱을 낮추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또 생활 속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제도, 자전거 관련 행사 등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전거정책을 통해 전주를 자전거 타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전거 시범학교와 동별 자전거 동호회 등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제

도 등을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자전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전주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도 가입할 계획이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돌출되거나 파손돼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자전거 정책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동별 자전거 동호회 및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운영 △자전거 타는 날 및 자전거 행진 추진 △생태 자전거 놀이터 및 신약자전거 연습장 조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자전거정책과 직원

들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위해 수요일 직원 자전거 현장점검, 자전거 도로 선진지역 자전거 라이딩 등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시민 참여 자전거 행사,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자전거 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수렴 하는 자전거 다들마당'의 경우 전주시 2017년 다들마당 사례발표 공유한마당'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법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도록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마을회관서 식료품 훔친 60대 불잡혀

시골 마을회관을 돌며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

고창경찰서는 3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전모(6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30분경 고창군 고창읍 마을회관에 들어가 쌀 1포대(20kg)와 라면 1상자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창지역 마을회관 3곳에서 15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전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에 시골 마을회관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서 "떡을 갖기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지난해 9월 출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경 전주 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33·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는 등 같은해 9월 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

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B씨가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